

젊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로스의 『죽어가는 동물』과 박범신의 『은교』를 중심으로

오 봉 희
(경남대학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젊음과 늙음의 대립 구도에서 발생하는 시기와 질투를 필립 로스의 『죽어가는 동물』과 박범신의 『은교』를 통해서 고찰한다. 『죽어가는 동물』에서 젊음에 대한 질투와 시기는 데이비드가 완벽하게 아름다운 몸을 가진 콘수엘라를 빼앗아갈 젊은 남자를 상상하는 데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데이비드의 상상 속에서 그의 경쟁자는 젊은 시절의 그 자신이면서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닌 남자다. 이 점에서 그가 콘수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질투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잃어버렸지만 경쟁자는 누리고 있는 젊음에 대해 느끼는 시기심은 일종의 “자기 시기심”이다. 데이비드에게 성애적 결합은 일시적으로 죽음에 복수하는 행위다. 그러나 늙음에 대한 자의식에서 비롯되는 젊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콘수엘라와의 성애적 관계에서 그는 계속 고통 받으며, 죽음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약화된다. 박범신의 『은교』에서 시기와 질투는 문학적 재능과 은교를 둘러싸고 이적요와 서지우 사이에서 발생한다. 서지우는 처음에는 이적요를 찬양하지만 대중작가로 성공한 이후에는 그의 문학적 재능을 시기하고 은교에 대한 그의 욕망을 간파한 후에는 격렬한 질투심에 휩싸인다. 그는 ‘젊음 대 늙음’의 구도로 자신과 이적요의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그의 늙음을 모욕하기까지 한다. 이적요는 그런 서지우의 행위를 자연법칙을 모욕한 것으로 여기며 분노하는데, 그의 분노에는 젊음에 대한 시기심과 그의 욕망을 이해해주리라 믿었던 서지우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다.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이적요로 하여금 서지우를 ‘처형’하게 만들고, 그를 ‘처형’한 자기 자신까지 ‘처벌’하게 만든다.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적요를 사로잡는 것은 은교를 통해서 보는 고통치는 생명의 숨결과 그것의 아름다움이다.

주제어 : 시기, 질투, 필립 로스, 『죽어가는 동물』, 박범신, 『은교』, 분노

I. 상반된 노년 이야기

‘생로병사’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고통,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말한다. 태어나는 고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겪은 것이기에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세 고통, 특히 늙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은 바람이 인간에게는 있다. 아니,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늙지 않고 심지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불로장생과 무병장수에 대한 기원, 불로초나 영생을 얻는 약이나 방책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은 이런 바람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사랑이야기 중에서 에오스(Eos)와 티토노스(Tithonus)의 이야기는 영생을 얻음으로써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을 보여준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트로이 왕가의 젊은이인 티토노스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그리고 제우스에게 인간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티토노스를 신들처럼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제우스는 에오스의 청을 받아들여 티토노스를 불멸의 존재로 만든다. 그러나 티토노스가 젊음을 잃기 시작하자 에오스는 그와의 잠자리를 피하다가 그가 늙어 거동조차 못하게 되자 방에 가두어버린다. 감금되어 버려진 티토노스는 계속 늙어가며 희미한 소리만 내다가 결국에는 메뚜기로 변한다. 에오스는 티토노스가 불멸하기를 바랄 정도로 그를 사랑했지만, 그가 젊음을 잃는 순간 여신의 사랑도 끝나버렸다. 에오스는 티토노스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젊음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어야 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대표적 특성인 변덕과 사랑의 속성을 고려하면 티토노스가 영생과 함께 영원한 젊음을 얻었더라면 그들의 사랑이 영원했을리라 말하기 어렵지만 말이다.

인간세계에서 영원한 젊음과 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떨까. 19세기 초 영국의 문학연감 중 하나인 『기념품』(*The Keepsake*)에 1833년에 실린 셸리(Mary Shelley)의 「필멸의 불멸인」(“The Mortal Immortal”)은 사랑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사랑의 감정을 없애는 약으로 잘못 알고 불사의 약을 마신 윈지(Winzy)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약이 사실은 불사의 약임을 알게 되

있을 때 원지는 인간의 힘으로 자연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확신하며 약의 효능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난관을 극복하고 결혼한 아내인 버사(Bertha)는 나이를 먹는데, 그는 20대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버사는 그의 젊음을 시기하고, 마을사람들은 그를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다. 마을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둘은 낯선 곳으로 이주하지만 늙지 않는 원지의 육체로 인한 갈등은 더 심해진다. 버사는 미용술과 옷으로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감추려 하고 원지와 다른 여자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질투한다.¹⁾ 원지를 인간공동체와 연결시켜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버사가 죽은 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그에게 시간은 지루하게 흐르며 친구 하나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삶은 그를 지치게 한다. “죽음을 원하면서도 결코 죽지 않는—필멸의 불멸인”(Shelley 11)인 그에게는 죽음이 유일한 피난처이지만 이 피난처는 그를 허용하지 않는다. 원지는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얻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

위의 이야기들처럼 영원한 생명과 젊음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키케로(Cicero)처럼 노년을 예찬하는 것은 어떤가. 「노년에 관하여」에서 키케로는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하며 (...)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29)는 네 가지 이유로 노년을 비참하게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반박한다. 키케로에 따르면 노년에는 체력이 떨어져 육체적 활동은 못하지만 정신적 활동은 할 수 있으며, 분별력이나 판단력처럼 큰일을 할 수 있는 자질들은 오히려 늘어난다. 또한 몸이 허약해지면서 잃게 되는 것은 정신적 활동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키케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되 매사를 자기 힘에 맞게 행해야”(39) 하는 것이다. 그는 쾌락에 관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욕망을 품지 않게 해주는 노년”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쾌락이란 “마음의 눈을 멀게” 만들기에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52). 또한 키케로에 따르면 “죽음[은] 전혀 나이를 가리지 않[기에]”(79) 노년이 특별히 죽음과 더 가깝다고 할 수

1) 필자는 「메어리 셸리의 초자연적 단편에 나타난 신체와 젠더의 문제」에서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원지의 육체로 인한 원지와 버사의 갈등을 신체와 젠더 관계의 틀로 고찰한 바가 있다.

없다. 그러나 키케로는 칭송할 수 있는 노년은 “어디까지나 젊었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은 노년”(74)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노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젊은 시절임을 명확히 한다. 게다가 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노년을 잘 참고 견딘다”(22)고 말함으로써 노년을 즐겁고 존경스러운 것으로 칭송하면서도 그것이 인내의 대상임을 부지불식간에 내비친다.

노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든 찬양하든 간에 그 동기는 모두 노년의 근본적 결핍인 젊음의 상실 상태에서 비롯된다. 젊음이란 “아끼는 법을 모를 때만”(엡스타인 75)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아끼거나 잃지 않으려 애쓰는 순간 떠나버리며, 한번 떠나간 젊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젊은 시절을 이미 지나온 사람들은 한때는 자신들도 누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찬란한 젊음을 바라보며 동경의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동경은 쉽사리 시기로 녹아든다”(엡스타인 70). 그들은 또한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감하지는 못하던 젊은 시절에 허비해버린 젊음을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한다. 노년에 이른 사람이 젊음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렇게 젊음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젊은 날에 대한 후회, 젊음에 대한 동경과 시기가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이런 감정들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보통은 유별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젊음에 대한 시기의 감정에 늙음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더해지고, 이 분노의 감정이 오래 지속될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필립 로스(Philip Roth)의 『죽어가는 동물』(*The Dying Animal*)과 박범신의 『은교』에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두 작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론적인 몇 가지 논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겠다. 그 다음에는 문학교수이자 문화비평가인 노년의 데이비드 케페시(David Kepesh)와 젊은 대학생인 콘수엘라 카스틸로(Consuela Castillo)의 성애적 관계를 중심으로 『죽어가는 동물』에서 그려지는 노년의 질투와 시기를 들여다보겠다. 또한 박범신의 『은교』에서 열일곱 살의 여고생인 은교를 둘러싸고 노년의 시인인 이적요와 그의 젊은 제자인 서지우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젊음에 대한 시기와 늙음에 대한 모욕, 이것들로부터 비롯되는 분노의 감정을 살펴보겠다.²⁾ 결론에

2) 두 작품 모두 여성을 대상화하는 전형적인 남성 서사의 문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

서는 로스의 작품에 나타나는 시기/질투와 박범신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시기/질투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들여다보겠다. 몇 년 전부터 ‘100세 인생’ 혹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며 2017년 8월말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년은 이미 중요한 사회적 화두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젊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및 늙음에 대한 모욕을 고찰하는 것은 노년의 감정들과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II. 젊음에 대한 시기, 늙음에 대한 모욕

1.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론적 접근

일반적으로 시기와 질투라는 말은 혼용되고, 실제로 두 감정이 뒤섞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시기는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지칭하고, 질투는 타인에게는 없지만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나카노 노부코는 시기와 질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자원을 자신 이외의 누군가가 갖고 있고 그것을 자신도 갖고 싶을 때 그 상대에 대해 생겨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질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자원을 자신 이외의 누군가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자원을 그 사람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가치 있는 자원을 다른 누군가가 갖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상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78)

문에 페미니즘의 분석틀로 보면 문제적인 지점들이 많으며 이런 지점들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여건상 본 논문에서는 노년의 남성 주인공들과 그들이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에 국한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두 작품의 문학적 가치는 차치하고 시기와 질투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여 두 작품을 살펴보겠다.

위의 구분에 따르면 시기와 질투는 모두 비교에서 생겨나는 감정으로 불쾌감을 동반한다. 따라서 비교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비교상대를 잠재적으로라도 적대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차이점도 있다. 시기가 자신이 결여하고 있는 가치 있는 대상과 결부되는 감정이라면 질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대상과 결부되는 감정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욕망하는 대상을 자신이 결여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기와 질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기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대상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질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 있는 대상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의 감정이 항상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우블(Rolf Haubl)은 『시기심』에서 미국인과 독일인의 성향에 관한 우스갯말을 하나 소개한다. 여기에서 미국인은 지나가는 캐딜락을 보고 “야! 멋진데! 나도 언젠가 저런 차를 한번 몰고 싶어!”라고 반응하는 반면에, 독일인은 지나가는 BMW를 보고 “저 인간도 걸어다닐 때가 있을걸!”이라고 반응한다(12). 하우블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인의 반응은 타인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물건의 주인처럼 되고자 하는 “건설적” 시기심이라면, 독일인의 반응은 자신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되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파괴적” 시기심이다(12). 시기의 감정을 ‘경쟁적 시기심’과 ‘악의적 시기심’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이웃의 정원을 보고는 그와 같은 정원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경쟁적 시기심이고, 이웃의 정원이 망쳐지기를 바라는 것은 악의적 시기심이다(Thomason 41). 어떤 용어를 쓰든간에 전자에 속하는 시기심은 그 감정을 느끼는 당사자에게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마음을 품게 하는 반면에, 후자에 속하는 시기심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방에게 해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선망’이라 부르는 것과 유사한 건설적 혹은 경쟁적 시기심은 “자기 향상”(Thomason 41)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반면에 파괴적 혹은 악의적 시기심은 개인차원에서든 사회차원에서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의 감정은 바로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위와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토머슨(Krista K. Thomason)은 “시기심의 악의적 요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악의적이지 않거나 그 감정의 본질적인 특징들이 아니라고”(44) 본다. 토머슨의 설명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의 여부가 나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데, 그런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는 결여하고 있는데 타인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기하게 된다. 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바란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내가 원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지 못하는데 타인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통”(Thomason 48)을 느끼는 것이고, 이 고통에서 시기심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시기에서 핵심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진 사람에 대한 파괴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지 화가 나는 것이고,” 따라서 시기는 “미움보다는 쓰라림과 더 많이 유사한 가벼운 형태의 화”로 볼 수 있다(Thomason 48). 또한 토머슨은 시기심이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들에 투사하는 감정의 일부이고 “[내가] 좋은 삶에 중심적인 것으로 여기는 물건들과 재능을 소유하는 것은 도덕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시기의 감정은 도덕적 삶의 일부”(48)라고 말한다. 물론 시기심이 항상 도덕적으로 좋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토머슨은 “결코 시기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51)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입장에 따르면 시기심은 제거되어야 하는 부도덕한 감정이 아니다.

벤제브(Aaron Ben-Ze'ev)는 시기심은 “주체의 개인적 운명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망을”(553) 자극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시기심의 핵심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토머슨의 견해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 그러나 시기심의 도덕적 가치를 옹호하는 토머슨과 달리 벤제브는 “시기심은 도덕적 감정이 아니다”(564)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벤제브에 따르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주체가 인지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이다. 이런 열등감은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보다 높지만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과 비교될 때 더 두드러진다. 이런 근접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만한

과오가 나에게 있고,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공적이 있는가'라는 공과(desert)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열등감과 박탈감이 맞물리면서 시기심은 “주체의 부당한 열등함”(Ben-Ze'ev 563)에 대한 감정으로 이야기된다.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한 나의 위치가 부당하다고 느낄수록 시기심은 더 강렬해지는 것이다. 공과의 문제에서 주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도덕적 관심사가 아니라 주체가 부당한 열등감이라 여기는 것에 대한 특정한 개인적인 관심사”(563)로 도덕적 주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벤제브는 지적한다. 즉, 주체가 부당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무나 사회정의의 실현 혹은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평등주의적 도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론적 구분을 받아들여 시기심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나에게에는 없는데 타인에게에는 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질투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대상을 타인에게 빼앗길까 염려할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시기심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부분에서는 벤제브의 입장을 따를 것이다. 토머슨의 주장처럼 시기가 주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건이나 특질들에 대한 것이고 주체를 자극하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은 주체의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인과의 비교에서 주체가 갖는 부당하다는 의식은 주체가 처해있는 특정한 개인적 상황에 대한 의식이 지 주체와 무관한 사람의 상황이나 일반적인 사회상황에 대한 의식은 아니며, 주체의 개인적 상황의 부당함에 대한 의식이 사회상황의 부당함에 대한 의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2. 『죽어가는 동물』: 젊음에 대한 질투와 (자기) 시기심

현대 미국소설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 한 사람인 로스(Philip Roth)는 케페시를 주인공으로 하는 세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가슴』(*The Breast*)과 『욕망의 교수』(*The Professor of Desire*)와 『죽어가는 동물』(*The Dying Animal*)이 그 소설들이다.³⁾ 그 중에서 2001년에 발표된 『죽어가는 동물』은 “그것은 노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첫 구절이 유명한 에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에 나오는 “죽어가는 동물”(a dying animal)이란 구절에서 그 제목을 따왔다. 그러나 예이츠의 시가 젊음을 욕망과 육체에 단단히 동여매어진 것으로 그리면서 노년을 불멸의 영혼과 예술을 추구하는 여정으로 노래하는 반면에, 로스의 소설은 데이비드와 콘수엘라의 관계를 중심으로 몸과 성애적 욕망, 젊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파헤친다.

『죽어가는 동물』은 처음 콘수엘라를 만났던 때로부터 8년이 흐른 시점에서 데이비드가 과거를 회상하며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비드와 다른 여학생들의 관계와 아들과의 갈등도 나오지만, 콘수엘라의 젊은 몸이 갖는 여성적 아름다움에 매료된 데이비드와 그의 문화적 권력과 생활에 매료된 콘수엘라의 관계, 헤어지고 몇 년 후에 유방암에 걸려 찾아온 콘수엘라로 인해 촉발되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데이비드의 생각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예이츠의 시에서 따온 제목뿐만 아니라 작품의 첫머리에 인용되어 있는 에드나 오브라이언(Edna O'Brien)의 “몸도 두뇌만큼이나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은 이 소설이 성애적 열정과 욕망에 사로잡힌 몸, 늙고 죽어가는 몸에 대한 이야기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데이비드의 목소리로 전해지며, 콘수엘라는 그의 성적 욕망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콘수엘라의 젊음과 아름다운 몸에 대한 데이비드의 집착이 강해질수록 수동적 대상인 콘수엘라가 오히려 데이비드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의 평온을 교란시킨다. 그 동요와 교란은 무엇보다 콘수엘라의 이전 남자 친구들에 대해 데이비드가 느끼는 질투와 이미 젊음을 잃어버린 그가 그들의 젊음에 대해 느끼는 시기에서 비롯된다.

콘수엘라는 데이비드를 숭배하지만 단 한 번도 그를 욕망한다고 말한 적

-
- 3) 다른 두 작품들에 비해서 『죽어가는 동물』은 발표 직후 호평을 받지 못했다. 필자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이 작품에 관한 서평들은 여러 편 발표되었지만,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논문들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이 작품을 다루는 논문으로는 쇼스타크(Debra Shostak)의 “Lateness, Timeliness, and *Elegy*: Philip Roth’s *Dying Animal* on Film”과 카쇼렉(Matthew Kashorek)의 “Dirty Old Man: Transgression and Transvaluation in Philip Roth’s *The Dying Animal*” 정도가 있다. 전자는 로스의 『죽어가는 동물』과 그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이자벨 코이젯트(Isabel Coixet)의 영화 <비가>(Elegy)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후자는 필립 리프(Philip Rieff)의 사회학적 문화론의 틀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고찰하고 있다.

이 없다.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엄청난 나이 차이와 자신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예술 그 자체로”(37) 보는 문화비평가의 권위에 이끌리는 것이지 성적 대상 자체로 데이비드를 욕망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데이비드는 둘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콘수엘라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계속 그녀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그녀를 누군가에게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23)에 시달린다. 데이비드 스스로가 “나의 끔찍한 질투”(26)라고 말하는 이 감정은 콘수엘라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생겨나 둘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점점 심해진다. 그녀는 데이비드의 문화적 권위에 이끌리지만 정작 그녀와의 관계에서 데이비드는 어떤 권위도 느끼지 못하며 성취감이나 소유의식도 갖지 못한다.

데이비드가 자신의 모든 대담한 성애적 관계들을 다 털어놓는 유일한 친구로 나오는 조지(George O’Hearn)는 콘수엘라와의 관계에서 데이비드가 처한 상황을 비평가가 지켜야 하는 “심미적 거리의 법칙을 위반했기”(99) 때문인 것으로 본다. 대상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대상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데이비드는 콘수엘라와의 “심미적 경험을 감상적으로 만들고—그것을 개인화했다”(99)는 것이다. 특히 조지는 그가 콘수엘라의 생리혈을 훑아 마신 것을 문제 삼는데, 이 사건은 수동적인 심미적 대상의 위치에 있는 콘수엘라가 사실은 데이비드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음을 예측한다. 그런데 데이비드가 콘수엘라의 생리혈을 훑은 것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카를로스(Carlos Alonso)에 대한 질투에서 촉발된 행위다. 콘수엘라가 생리하는 모습을 카를로스가 낮을 잃고 바라보곤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데이비드는 카를로스처럼 그녀의 생리혈이 허벅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생리혈을 훑는 극단적인 행위까지 한다. 그런 행위를 할 때 데이비드는 노년의 남자가 아니라 “다시 남자아이가 된 것처럼 느낀다”(71). 이것은 콘수엘라와의 관계에서 데이비드를 괴롭히는 것이 그녀의 과거 남자친구들에 대한 질투임을 잘 말해준다.

데이비드가 콘수엘라의 이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질투에는 그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젊음에 대한 시기가 뒤섞여 있다. 그는 콘수엘라와의 관계에서 늙음과 젊음의 차이를 “매순간”(34) 통렬하게 느낀다. 콘수엘라를 성적으로 취할 때 데이비드는 자신이 다시 젊어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젊은 것은 그녀임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를 몹시 고

통스럽게 느끼는”(35) 것이다. 그리고 젊은 남자가 그녀를 채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나이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보통의 포르노그래피라면 그는 만족을 얻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괴로움을 해소하겠지만, 데이비드가 상상하는 젊은 남자와 콘수엘라, 늙은 남자로 이루어진 “질투의 포르노그래피”(41)에서 그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 만족을 잃는 사람, 이미 잃어버린 사람”(42)의 위치에 있다. 데이비드의 질투심은 노년의 그가 젊음에 대해 갖는 시기심을 포괄하는 감정이며, 다시 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콘수엘라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는 질투와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흥미롭게도 데이비드는 자신이 질투하는 남자가 사실은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남자에게 콘수엘라를 잃게 되리라는 것을 데이비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25살의 나 (...) 경험이 없는 나”(42)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젊은 그 자신이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콘수엘라를 바라보는 장면을 상상한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또한 그녀가 만나러 오는 남자가 자신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 젊은이는 “한때는 나였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닌”(42) 남자다. 이 점에서 데이비드가 상상 속 젊은 남자에게 느끼는 시기의 감정은 일종의 “자기 시기심”(하우블 34)이다. 하우블은 자기 시기심을 설명하면서 아힘 폰 아르님(Ahim von Arnim)의 시를 인용한다. 이 시에는 “청년 시절의 나 외에 / 과연 내가 누구를 더 시기할 수 있으리”(하우블 35, 재인용)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젊었을 때의 자신을 시기하듯이, 데이비드도 콘수엘라와 같은 여성에게서 “나는 당신을 욕망해요, 당신도 나를 욕망하기를 원해요”(23)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젊은 육체를 지녔던 과거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며 시기하는 것이다. 이 문맥에서 데이비드가 한때는 그 자신이었던 젊은 누군가가 콘수엘라를 성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느끼는 “포르노그래피적 괴로움”(43)에는 콘수엘라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질투의 감정과 젊음에 대한 시기, 젊은 시절의 자신에 대한 자기 시기심이 뒤섞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콘수엘라와의 관계가 갑자기 끝나버린 이후에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던 그녀에 대한 데이비드의 성적 갈망은 8년 후에 그녀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에야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콘수엘라는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울 때 나의 몸을 본”(131) 사람이 데이비드라고 말하면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그녀의 가슴이 훼손되기 전에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한다. 데이비드는 그 요청을 들어주면서 “콘수엘라의 몸이 지닌 성애적 힘은 (...) 끝났다”(142)고 단정한다. 이제 그녀의 병든 몸은 자신의 늙은 몸처럼 죽어가고 있고, 그녀도 이제는 “나이가 주는 상처”(148)를 안다고 데이비드는 생각한다. 암으로 죽을지도 모를 그녀의 시간은 이제 그의 시간과 같이 흐르며, 그의 시간보다 “심지어 더 희망이 없다”(148). 이렇게 콘수엘라의 몸이 성적인 몸이 아니라 죽어가는 몸임을 알고 나서야 그녀에 대한 데이비드의 갈망은 사라지며, 그녀를 둘러싸고 한때는 그 자신이었지만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닌 젊은 남자를 상상하며 데이비드가 느꼈던 질투와 시기의 감정도 완전히 사라진다.

데이비드는 섹스란 우리의 육체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섹스를 할 때만 “인생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과 인생에서 [우리가] 패배당한 모든 것에 완전히, 비록 잠깐이라 하더라도, 복수한다”(69)고 말한다. 섹스를 통해서 복수하는 것에는 죽음도 포함된다. 데이비드는 섹스와 죽음 중에서 “어느 힘이 더 큰가?”(69)라고 반문하면서 전자의 힘이 후자의 힘보다 더 강력함을 암시한다. 이런 견해는 그가 성애적 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저항 행위임을 시사한다. 물리적 존재물인 우리의 육체는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며 결국 죽어 소멸하는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멸할 바로 그 육체의 성애적 결합을 통해서 일시적이거나 죽음에 깨끗하게 복수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노년의 데이비드에게 섹스는 단순히 성적 쾌락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임박해오는 죽음에 복수하는 행위다. 그러나 늙음에 대한 자의식에 때문에 콘수엘라와의 성애적 관계에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개입하면서 통제력을 잃고 고통 받는 것은 데이비드 자신이다. 그는 콘수엘라와의 관계에서 쾌락을 얻지만 결코 갈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섹스를 통해서 죽음에 복수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질투와 시기의 감정은 그 복수마저 불완전하게 만든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늙은 몸에 콘수엘라의 병든 몸이 더해지면서 임박한 죽음의 그림자는 더 짙어지며, 성애적 힘을 지닌 몸은 희미해지고 죽어가는 물리적 몸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최종적인 승리가 죽음의 것임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년에 이른 사람은 젊

음을 더욱 시기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3. 『은교』: 젊음에 대한 시기, 늙음에 대한 모욕

작품 말미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박범신은 『은교』를 『출라체』와 『고산자』와 함께 “갈망의 삼부작”으로 묶으며, 이 작품에서 “비로소 실존의 현실로 돌아와 존재의 내밀한 욕망과 그 근원을 감히 탐험하고 기록했다”고 쓰고 있다(406).⁴⁾ 이 탐험기록은 이적요가 남긴 노트와 서지우의 일기, Q변호사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죽어가는 동물』이 데이비드의 목소리로만 서사가 진행되는 반면에 『은교』는 서로 대립하는 이적요와 서지우의 목소리를 모두 담고 있다. Q변호사를 통해서 이적요와 서지우, 은교의 뒤얽힌 관계들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제 삼자의 목소리도 들려준다. 『죽어가는 동물』의 콘수엘라처럼 『은교』의 은교도 무엇보다 두 남성 주인공들의 욕망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적요를 ‘할아버지’라 부르고 서지우를 ‘서선생님’이라 부르는 은교는 두 사람이 모두 죽은 후에 삼각관계의 한 축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일종의 증인으로서 둘의 관계를 이해할 핵심적인 증언을 제공한다. 또한 둘을 모두 좋아하는 은교의 목소리는 Q변호사의 목소리와 대칭을 이룸으로써 독자가 Q변호사의 입장에서 세 사람의 관계를 조망할 때 발생하는 감정적 거리감을 완화시킨다.

제목만 보면 이 작품은 은교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적요와 서지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지우는 오랫동안 진심으로 이적요를 섬겼다. 그를 의도치 않게 문학의 길로 이끈 서선생님이자 “섬광 같은 시적 감수성”(85)을 지닌 천재적 시인으로서 이적요는 그에게 “웅혼한 산

4) 『은교』에 대한 국내논문들은 여러 편 있다. 이미화의 「박범신 『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와 정미숙의 「노년과 젠더의 문화정치학—박범신 노년 소설 『은교』의 경우」는 ‘노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문맥에서도 흥미롭다. 이채원과 박성희·허배관은 『은교』를 각각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과 사쿠라바 가즈키의 『내 남자』와 비교분석하고 있다. 박진과 서은경처럼 『은교』를 박범신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논문들도 있다. 『은교』를 원작으로 하는 정지우의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는 두 작품을 같이 고찰하는 논문들도 나왔다. 그러나 『은교』에 나타나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고찰하는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맥, 깊은 우물이었다”(177). 심지어 그는 선생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작가로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요소들은 이적요에 대한 그의 감정이 찬양임을 말해준다. 시기나 질투와 달리 찬양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도 그것들을 “성취할 능력을 우리가 덜 갖추었으며(…)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중심적인 것으로 보지 않을”(Thomason 51) 때의 감정이다. 찬양은 시기할 때 느끼는 것과 “동일한 손상의 느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Thomason 51). 이런 찬양의 요소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시적 감수성을 지닌 이적요에 대한 서지우의 감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시기나 질투는 없다. 이적요에게도 서지우는 오랫동안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다. 서지우에게 문학적 감수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서지우를 “내 새끼”(250)로 여겼다. 이적요는 자신이 죽으면 “내 집을 물려받아 지켜갈 사람도 그였고, 내 유지를 따라 시집들을 관리해줄 사람도 그라고 믿었다”(250). 부실한 자식을 구박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부성에 같은 이적요의 감정에 시기나 질투는 없다. 그러나 이적요가 대신 써준 작품들을 서지우가 발표하여 대중작가로 성공하면서 둘의 관계는 금가기 시작한다.

“고유하고 쓸쓸하다는 뜻을 가진 적요”(16)는 이적요가 직접 고른 필명으로 사람들은 그를 시만 쓰면서 저급한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적요를 실천해온 시인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로지 시만 쓰며 혼자 산 것은 사후에도 훌륭한 시인으로 남기 위한 전략이자 편견덩어리인 지식인사회에 대한 야유였다고 이적요는 고백한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적요는 실제의 그가 아니다. 아들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서지우가 절반쯤 써놓은 것을 포르노그래피 소설로 고쳐 마무리하고 서지우의 이름으로 장편공모에 내게 할 때 그는 문학계를 가지고 놀아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적요는 자신의 전략을 세상에 까발리고 시인으로서 이룬 것들을 “스스로 시궁창에 버리고 싶은 자학의 수단으로, 서지우를 대리인 삼아 [문학판 지식인들의] 문법에 맞춰”(145) 그런 소설을 썼다는 걸 깨닫는다. 더구나 그가 써준 소설이 당선된 후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세 번째로 대필해준 『심장』의 대성공으로 서지우가 유명해진 후에는 둘의 갈등이 악화된다. 이제 이적요는 서지우를 멸시하고 그를 대하는 서지우의 마음도 찬양에서 시기로 변한다.

이적요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발표할 수 없는 소설들을 서지우의 이름을

빌려 발표하고, 서지우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작가로서의 성공을 이적요의 재능을 빌려 이룬다. 따라서 은교가 등장하기 전까지 둘 사이에 생기는 긴장과 갈등은 문학적 성격의 것이다. 그 갈등에서 치명적인 것은 이적요의 작품을 서지우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세상에 알려지기를 두 사람 모두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까봐 몹시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중성은 특히 서지우에게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심장』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그는 실패하기를 바랐는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말로 심증을 내비친다. 이제 인기작가가 되었다는 이적요의 거짓 위로에는 “원망에 찬 눈빛”(146)을 보낸다. 서지우가 “나를 부당하게 상처 입힌 상대에 대해 오랫동안 품는 (...) ‘지속적인 분노’”(나카노 노부코 20)인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적요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지우는 이적요의 대필 덕분에 인기작가가 되지만, 막상 성공하자 “쾌감보다 끔찍한 느낌”(166)에 고통 받는다. 유명해질수록 그는 이적요의 문학적 재능을 시기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없음을 절감하며 굴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굴욕감은 “실제의 자신이 이상적인 자신을 따라가지 못하는”(하우블 131)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이다. 서지우가 이적요에게 품는 원한과 피해자 의식은 바로 이런 굴욕감과 시기심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페어리(Henry Fairlie)에 따르면 시기심은 만족을 모르는 감정으로 “그것을 유일하게 만족시키는 것은 끝없는 자기-고문이다”(61). 시기하는 사람이 계속 자기-고문에 시달리는 것은 “끝없는 자기 굴욕감”(Fairlie 61)을 느끼기 때문이다. 굴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되찾아야 한다. 서지우가 『심장』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 필사적으로 단편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대중작가로 성공한 이참에 괜찮은 단편을 발표하여 본격문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면 그는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발표할 경우 대중작가로서 얻은 명성조차 잃을 정도로 그의 작품들은 형편없기에 서지우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기 굴욕감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섹스를 하면서 “당신은 이런 건 못 하겠지. 늙었으니까”(167)라고 생각하거나 술김에 “제가 이적요 선생님보다 못한 게 뭘니까!”(170-71)라고 외쳐보지만, 이런 것들은 왜곡된 굴욕감의 표현에 불과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문학적

재능으로는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이적요를 ‘늙었다’라고 모욕한다. 이것은 그가 손상된 자존감을 되찾기 위해서 이적요와의 관계를 ‘천재적 스승 대 무능한 제자’가 아니라 ‘한갓 노인 대 팔팔한 젊은이’의 관계로 재규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적요를 노인으로 보는 서지우의 시선은 문학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 함께 점점 더 대담해진다. 서지우는 점차 『심장』을 자신이 직접 썼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며, 심지어 이적요의 단편을 몰래 훔쳐 살짝 고친 후 발표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적요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며 “차라리 선생님이 치매에 걸렸으며, 쓰러져 누웠으면”(287) 하는 상상까지 한다. 시만 썼다고 알려진 이적요가 산문들도 썼다는 것이 알려지면 오히려 해로울 것이기에 그것들을 자신의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이 이적요에게 전혀 누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들이 대담해지면서 “저놈의 노인 네가……”(290)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올 정도로 이적요에 대한 반발심이 서지우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난다. “내가 아니면 늙고 병들어 무너져가는 당신 곁을 누가 지켰겠는가”(291)라는 서지우의 생각에서는 둘의 관계에서 더 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적요라는 항변까지 느껴진다. 그에게 오랫동안 찬양의 대상이었던 이적요가 시기의 대상이자 반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인 대 젊은이’라는 대립구도는 은교가 등장하고 이적요까지 늙음을 깊이 의식하게 되면서 전면화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서지우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을 이적요를 향해 의도적으로 “본시창”이란 말을 던지고, “본능은 시궁창”의 줄임말인 그 표현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이적요가 간파하는 사건이 계기가 된다(70). 은교를 처음 본 순간 이적요는 “저돌적인 욕망”(24)을 느끼지만 그 욕망은 평온하게 잠복한다. 처음에 이적요가 은교에게서 보는 것은 “평생 갈망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로망”(93)이자 “불온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진실로 간절히 그리워한 (...) ‘처녀’의 ‘숨결’”(96)이기 때문이다. 이적요는 은교를 열 살 때 지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에게 못매를 맞던 그를 구해준 D와 결부시킨다.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면 D가 유일한 대상일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이적요에게 D는 사랑과 동일시되는 여인이다. “은교의 이마는 이미지에서 D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117)라는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적요에게 은교는 바로 D가 구현하던 로망이자 처녀의 숨결로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평온하던 이적요의 욕망은 서지우의

도발로 인해 불온하게 타오르기 시작한다. 게다가 일흔이 다 된 이적요에게 은교는 그의 늙음을 처연하게 느끼게 한다. 이제 문학적 성격을 띠던 이적요와 서지우의 갈등에 성적인 색채가 짙게 배이며, ‘젊음 대 늙음’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진다.

그런데 은교에 대한 이적요의 욕망을 간파한 후 은교에 대한 서지우의 욕망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는 “은교를, 아니 다른 그 무엇도 당신에게 일반적으로 빼앗기지 않겠다”(178)고 다짐한다. 이적요는 “‘죽어가는 노인’에 불과”(296)하고 이적요에 대한 은교의 마음은 여자애가 다정한 어른에게 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보지만 서지우는 질투심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적요와 은교만이 서로 “깊이 통하는 분위기”(264)를 감지하고는 소외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요소들은 서지우의 질투심이 한편으로는 “은교를 선생님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질투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은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질투심”임을 말해준다(225). 그리고 은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서지우의 다짐은 “재능에 있어 선생님의 그림자조차 따라갈 수 없는 고통”(225)에서 생겨나는 시기심이 질투심과 뒤섞여 있음을 암시한다. 문학적 재능을 둘러싼 갈등과 나이를 둘러싼 갈등이 뒤섞이고, 서지우가 이적요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 느끼는 시기심과 이적요와 은교 사이에서 느끼는 질투심이 분리 불가능하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은교의 등장이 서지우가 이미 이적요에게 느끼고 있는 시기심에 질투심을 더한다고 한다면, 이적요에게서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시기의 감정을 촉발시킨다. 그 대상은 젊음이다. 은교가 이적요의 가슴에 창 모양의 해나를 그려주는 도중 잠복되어 있던 그의 욕망이 돌발적으로 발화한다. 이 사건 이후 이적요는 늙은 자신의 몸과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비열한 질투심”(135)을 느낀다. 이적요가 질투심이라 말하는 감정은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구분에 따르면 사실은 시기심이다. 젊음에 대한 이적요의 시기심은 “젊었을 때에도 중늙은이 처럼 오로지 일만 했던” 그에게는 “아예 청춘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화”의 감정으로 이어진다(135). 자신은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는 젊은이들을 보며 이적요가 느끼는 화는 서지우가 차안에서 은교의 몸을 탐하는 것을 본 순간부터 서지우에게 집중되고 F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격렬한 분노

의 감정으로 악화된다.

이적요는 차안에서 은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F가 다가와 은교의 남자친구라고 말하면서 “눈만 감으면 송장,” “씩은 관처럼 보여,” “충공이야. 충격과 공포!”라는 욕설들을 쏟아낼 때 그것이 서지우가 시킨 일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207). 그는 그저 “늙는 것, 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참혹한 범죄”(208)라는 생각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며 슬픔에 빠져든다. 이적요의 슬픔은 은교를 욕망의 대상이자 누리지 못한 청춘의 보상으로 본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그는 자신의 실체를 일깨워줬다는 생각에 F에게 고마움까지 느낀다. 이적요는 늙음과 노인의 욕망을 범죄로 여기는 세상의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서지우가 시킨 일임을 우연히 알게 된 순간 그는 분노하며, 늙음을 기형으로 보고 노인의 욕망을 범죄로 여기는 시선에 저항한다. 그는 “노인은, 그냥 자연일 뿐이다. 젊은 너희가 가진 아름다움이 자연이듯이.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노인의 주름도 노인의 과오에 의해 얻은 것이 아니다”(250-51)라고 속으로 항변한다. 이적요는 서지우가 자신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태어나 살다 늙어 죽는 모든 존재를 모욕한 것이기에 그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적요가 격렬하게 분노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서지우에 대한 깊은 배신감이다. 이적요는 서지우를 가족이자 “모든 희로애락과 오욕칠정을 내보여도 되는 유일한 친구”(249)로 여겼고, 모두가 비난해도 “서지우만은 나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이해할 줄 믿었다”(281). 그런데 바로 그 서지우가 늙었다는 이유로 그를 부정하고 모욕한 것이다. 이 문맥에서 보면 이적요의 분노는 유일한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분노이자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분노이기도 하다. 의미심장하게도 분노의 화염 속에서 이적요는 젊어지고 싶다는 열망을 강하게 느낀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듯이 분노와 젊음에 대한 시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Q번호 사조차도 모멸감이 서린 시선으로 서지우를 보던 이적요의 모습과 유순했던 서지우를 떠올리면서 이적요가 쌍꺼풀로 대변되는 서지우의 젊음을 시기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적요는 “나의 사랑은 보통명사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명사였다”(203)고 할 정도로 은교를 사랑한다. Q번호사가 간파하듯이 이적요가 매료되는 은교의 아름다움은 특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젊음이 내쏘는 광채”(163)다. 그러나 이적요에게 은교의 젊음은 예외적인 것이고, 불특정한 사람들의 젊음은 그의 시기심을 자극한다. 이런 시기심과 서지우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이면서 이적요는 서지우에게 살의를 품는다.

F사건 이후 이적요는 ‘젊음 대 늙음’의 대립구도로 서지우와 자신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이 구도는 이적요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계속해서 그 자극제가 되는 것은 서지우다. 서지우가 저지르는 두 번째 죄는 이적요가 써둔 단편들을 훔치고 그 중 하나를 개악하여 발표한 것이다. 작품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고친 것에 이적요는 격분한다. 미발표 작품들을 자신의 영혼처럼 여기는 이적요에게 작품을 개악한 것은 “아주 철면피한 폭력을 행사한”(270)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서지우에게는 생로병사의 법칙을 모욕한 죄에 타인의 영혼인 작품을 훔쳐 못쓰게 만든 죄가 더해지고, 이적요는 속으로 서지우에게 ‘사형선고’를 내린다. 이 선고는 이적요가 서지우와 은교가 그의 집 서재에서 섹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한 날 실행에 옮겨진다. 은교를 순결한 처녀로 인식하고 있는, 둘이 이미 그런 관계임을 알 리 없는 이적요에게 그 장면은 충격적이다. 그 충격을 견디기 위해 이적요는 싫다는 은교를 서지우가 “홍포한 폭력”으로 “유린”한 것이라 믿는다(362).

이적요에게 미발표 작품들은 처녀 같은 영혼이고 은교는 순결한 처녀 그 자체다. 이적요의 시선에는 그의 미발표 단편들에 손을 댄 서지우의 행위와 은교를 범하는 서지우의 행위는 동일하며, 이런 폭력적 위반 행위들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적요에게 늙은이란 틀을 씌운 서지우는 “당신의 노망난, 미친 욕망으로부터”(330) 은교와 이적요를 지켜야 한다고, 이적요를 죽여서라도 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다짐에서 비롯되는 서지우의 말과 행동들은 오히려 이적요의 분노를 키우고 결국에는 이적요로 하여금 서지우를 ‘사형’시키게 만든다. 이적요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서지우의 시기심과 “선생님을 잃고 싶지 않고, 은교도 잃고 싶지 않다”(327)는 질투심은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 서지우의 죽음과 함께 젊음에 대한 이적요의 시기와 분노도 사라진다. 나중에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서지우는 이적요가 조작한 핸들 때문이 아니라 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그를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이적요는 매일 술을 마셔

지병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처형한다.

젊음에 대한 시기도, 서지우에 대한 분노도 사라진 이적요에게 남는 것은 “내 마음속 영원한 젊은 신부, 은교”(394) 뿐이다. 그러나 이제 은교는 강렬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자기 성찰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이적요는 은교로 인해 그에게도 살아있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음을 알았고, 그가 썼던 시들보다 은교가 “일깨워준 감각의 예민한 촉수들이 (...) 훨씬 더 신성에 가까우며 (...) 나의 시들은 대부분 가짜였다”(394)고 생각한다. 은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적요는 사후를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시를 썼으며 열일곱의 여자아이를 욕망했고 제자를 죽인 자신의 맨얼굴을 세상도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전말을 글로 남긴다. 그러나 이 글은 자기 변호문도, 회한 어린 반성문도 아니다. 오히려 이적요는 은교에 대한 그의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미친 감정”(12)이며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작가로 산 “서지우는 죽어도 좋을 무가치한 인간이었다”(13)고 쓴다. 노트를 남기면서 그가 원한 것은 “이적요는 본능을 가진 인간이었을 뿐 신성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398)는 진실을 세상이 아는 것이다. 그 진실은 사랑과 살인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문학적 갈등과 ‘젊음 대 늙음’의 대립에서 빚어지는 젊음에 대한 시기와 늙음에 대한 모욕, 생로병사의 자연스런 흐름을 부정당하고 모욕당한 사람의 분노, 그런 감정들이 초래하는 파국에 관한 이야기다.

이적요가 세상이 알기를 원했던 진실은 그의 노트를 읽고는 태워버리는 은교에 의해 영원히 묻힌다. 아무것도 몰랐던 은교는 Q변호사에게 반복해서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할아버지와 서선생님, 서로가 깊이 사랑하셨다”(377)고 증언한다. 서지우는 이적요의 문학적 재능을 시기하고 그를 늙은이로 치부하고 자신을 향한 그의 살의를 느끼면서도 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330)으로 여겼고, 이적요가 헨들을 조작했다는 것을 알고는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이적요는 늙음을 모욕하고 자신의 미발표 작품과 은교를 ‘훼손한’ 서지우를 용서하지 못해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서지우가 탄 그의 차가 폭발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완전히 먼 것 같[은]”(376) 심리상태를 경험하며, 서지우를 죽음으로 내몬 자신을 처벌했다. 그들이 서로 깊이 사랑했다는 은교의 말이 둘의 “비극적인 관계를 풀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열쇠”(378)라고 Q변호

사가 느끼는 것처럼 돌을 파국으로 치닫게 한 시기와 질투, 분노의 근원에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은 서지우를 통해서 자신은 결코 두려워하지 못했기에 더욱 찬란하면서도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젊음을 바라보는 이적요의 시선과 이적요를 통해서 자신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기에 존경하면서도 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천재적 시인의 노년을 바라보는 서지우의 시선이 겹쳐지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III. 죽음이라는 끝

흔히 아이가 순진무구하다면 노인은 평온하다고 여겨져 왔다. 마치 삶의 온갖 굴곡을 거치는 동안 모든 욕망과 갈등이 다 해소되고 격렬한 에너지가 다 소진되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몬 드 보부아르가 『노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현실 속 노년의 풍경을 가리는 “편리한 환상”(678)일 뿐이다. 노년에 평온이란 덮개를 씌우는 것은 늙음이란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보부아르 403)이기에 포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겉모습은 계속 변해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나이였기에 내적으로 보면 불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젊다는 내적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한”(보부아르 411)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늙어가고 있음을 잘 의식하지 못한다. 늙어가는 몸은 엄연한 객관적 현실이며 타인들이 가장 먼저 보는 우리의 모습인데도 말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몸 그 자체라기보다는 몸을 대하는 태도이다.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년에 이른 몸, 그 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노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의 『죽어가는 동물』과 박범신의 『은교』는 몸으로 겪는 노년을 성적 욕망과 깊이 결부되어 있고, 따라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그린다. 흥미롭게도 두 작품 모두 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권위 있는 늙은 남자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죽어가는 동물』의 데이비드는 문화비평가이자 문학교수이고 『은교』의 이적요는 시인이다. 둘 모두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젊은 여자에게 성적으로 매

혹당하며, 그녀에 대한 욕망이 강해질수록 젊음을 시기한다. 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심의 이면에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노년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런 유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와 이적요가 겪는 노년과 그 감정들은 사뭇 다르다.

우선 데이비드는 콘수엘라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즐기지만, 이적요는 은교를 향하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한다. 이런 차이는 데이비드가 콘수엘라를 처음부터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에 이적요는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은교를 처음에는 ‘소녀’로 본다든 점과 관련된다. 은교가 처녀로 다가오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적요는 그녀를 갈망하면서도 바라보기만 한다. 그에게 처녀인 은교는 “빛이고 정결이고 제단”(94)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잠복해 있던 그의 욕망이 아주 사실적으로 발화되었을 때 그는 끔찍하다고 느낀다. 또한 데이비드가 철저히 콘수엘라의 몸 자체에 집착한다면, 이적요는 은교의 몸에서 그가 이루지 못한 로망을 읽어내며, 그녀를 보면서 누추한 늙은 자신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청춘의 광채와 위로”(194)를 얻는다. 그는 은교에게서 D에게서 느꼈던 누이의 이미지를 느끼기까지 한다. 이적요가 보는 은교의 마지막 모습은 이삿집 트럭에서 “의젓한 어미 닭같이 동생들을 품고”(393)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적요는 그동안 본 것이 진정한 은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울이었음을 깨닫는다. 은교는 그의 처녀이자 신부로, 마지막에는 동생들을 품듯이 그를 품어주는 “나의 등롱 같은 누이”(399)로 이적요의 마음에 남는다.

은교에 대한 이적요의 욕망에는 성적인 색채와 문학적인 색채가 뒤섞여 있다. 데이비드가 콘수엘라를 아름다운 예술로 보기는 하지만, 그를 매혹하는 아름다움은 콘수엘라의 성애적인 몸 자체다. 데이비드가 유독 콘수엘라의 가슴에 완전한 아름다움을 부여하며 집착하는 것은 이 점을 잘 예증한다. 이적요가 은교에게 품는 욕망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그에게 은교의 몸은 무엇보다 숨소리, 숨결로 다가온다. 처음 본 은교의 손, 그 손등 위에 있는 “핏줄의 그 매듭이 뛰고 있다고 알아챘을 때”(93) 이적요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그는 코에서 나는 싸근거리는 소리, 속눈썹의 떨림, 숨 쉴 때 오르내리는 가슴의 움직임에서 “머물러 있으나 우주를 드나드는 숨결의 영원성”(93)을 보고 느낀다. 은교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그는 은교가 겨안은

“동생들의 숨결이 (…) 네 팔을 타고 흘러가 너의 가슴, 고동치는 숨결에 질 푸르게 고여드는 것”에서 “일찍이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본다(393). 그는 은교에게서 무엇보다 생명의 숨결이 생동하는 것, ‘살아있음’을 보고 느끼는 것이다. 이 살아있음과 그것의 아름다움은 이적으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적요를 내걸고 써온 자신의 작품들이 가져왔음을 깨닫게 한다. 은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일궈온 문학의 맨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서도 데이비드의 경험과 이적요의 경험은 아주 다르다. 데이비드는 콘수엘라의 몸에 집착할수록 그녀를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섞인 질투심과 그녀를 빼앗아갈 남자의 젊음에 대한 시기심으로 괴로워한다. 그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청년은 콘수엘라의 이전 남자친구들이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의 그 자신과 겹쳐지는 상상 속 인물이기도 하다. 즉, 그의 눈앞에 실물로 존재하는 청년이 아니라 콘수엘라의 몸을 향한 그의 집착과 욕망이 만들어내는 상상의 산물이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늙음을 의식할수록 젊은 남자를 상상하고, 역으로 이런 상상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늙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의식하게 만든다. 그러나 데이비드가 상상하는 남자는 어떤 실질적인 행동도 취할 수 없기에 그를 해소할 길 없는 질투와 시기로 몰아넣지만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반면에 이적요에게는 서지우라는 젊은 남자가 실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지우는 이적요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행동들로 그를 자극하여 시기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유발한다. 데이비드와 상상 속 청년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적요와 서지우의 관계는 쌍방향의 관계이다. 그렇다 보니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가 취하는 태도와 행동들과 말들이 서로를 자극하면서 얽히고 설킨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이 감정의 소용돌이는 시기와 질투, 분노를 중심으로 휘몰아치면서 두 사람 모두를 집어삼킨다.

데이비드에게는 모든 것을 다 떨어놓을 수 있는 조지라는 친구가 있으며 이적요에게는 제자이자 유일한 가족이며 친구라 할 수 있는 서지우가 있다. 조지는 데이비드에게 조언을 하는 조력자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며, 둘의 관계는 조지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반면에 서지우는 이적요가 써준 작품으로 대중적 성공을 거두면서 서서히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은교가 등장한 이후에는 이적요와 직간접적으로 대립한다. 조지와 데이비드

가 서로에게 갖는 감정은 같이 늙어가는 동년배의 우정으로, 둘 사이에는 시기나 질투, 원한이나 분노가 끼어들 틈이 없기에 둘의 우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지우는 이적요를 스승으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그의 문학적 재능을 시기하고 그를 원망하기도 한다. 또한 이적요를 늙은이로, 은교에 대한 그의 욕망을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치부한다. 자신을 향하는 이적요의 살의를 느끼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적요를 죽여서라도 그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다. 무엇보다 이적요의 작품으로 성공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은교에 대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한다. 작가로서의 명성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은교에 대한 욕망도 상당부분 이적요의 욕망에 자극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적요는 서지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적요를 시기하고 원망하고 도발하고 늙은이라 모욕할수록 더 큰 위협에 처하는 것은 서지우 자신으로 그가 촉발시키고 키운 이적요의 분노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죽어가는 동물』에서는 데이비드의 명예가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지만, 『은교』에서 명예는 중요한 문제이다. 서지우는 대중적으로 인기 있으면서 본격문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작가로서의 명예를 얻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적요의 명예를 최악의 수단을 써서라도 지키고자 했다. 이적요는 사후에 얻게 될 명예를 위해 전략적으로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노트를 남기고 자신이 죽은 지 1년 후에 그 노트를 공개하도록 유언을 남김으로써 자신이 쌓아온 명예를 허물고자 했다. 노트를 남기는 것은 생전에 가지고 놀았던 문학계를 한 번 더 가지고 노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실체를 폭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스스로를 처형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데이비드는 섹스를 죽음에 복수하는 행위라 믿는다. 그러나 콘수엘라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순간 그녀의 몸이 지닌 성적 힘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의 모습은 섹스를 통해서 죽음에 복수하고자 했던 그의 행위가 무력함을 말해준다. 병든 콘수엘라의 몸에서, 늙어가는 자신의 몸에서 죽음과 마주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항복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스를 수 없는 죽음은 이적요에게는 처벌의 수단이 된다. 서지우가 늙음을 모욕하고 자신의 단편과 은교를 훼손했을 때 이적요는 그를 죽음으로 내몰으로써 처벌한다. 이적요는 젊음을 시기하면서도 늙음이란 자연이라고 항변하면서 늙음을 부정

하는 시선에 분노한다. 그러나 정작 서지우가 죽자 솔로 자신의 죽음을 앞당김으로써 스스로를 처벌한다. 결국 데이비드와 이적요, 서지우까지 포함해서 질투나 시기, 분노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질병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것이든 혹은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앞당겨진 것이든 죽음이다. 죽음 앞에서는 성애적 욕망도, 질투나 시기도, 분노도, 죽음에 맞서 저항하는 순간적인 에너지도, 사후를 대비하여 짜놓은 전략도, 모두 힘을 잃고 스러진다.

■ 참고문헌

- 나가노 노부코 & 사와다 마사토, 『감정본색』, 노경아 옮김, 플루토, 2015.
- 롤프 하우블, 『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미옥 옮김, 에코리브르, 2009.
- 마르쿠스 틀리우스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천병희 옮김, 숲, 2014.
- 박범신, 『은교』, 문학동네, 2010.
- 박성희·허배관, 「욕망과 금기의 균열 — 사쿠라바 가즈키의 『내 남자』와 박범신의 『은교』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0, 2015.
- 박진, 「박범신 소설 『은교』에 나타난 “젊음”의 상징성과 자아분열의 양상 — 『더러운 책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60, 2015.
- 서은경, 「시간과 육체에 매인 인간존재의 배타적 사랑과 탈주에의 욕망: 박범신의 근작 『은교』와 『소소한 풍경』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3), 2014.
- 시몬 드 보부아르, 『노년: 나이들의 의미와 그 위대함』, 박혜영 옮김, 책세상, 2016.
- 오봉희, 「메어리 셸리의 초자연적 단편에 나타난 신체와 젠더의 문제」, 『영미문화페미니즘』 22(2), 2014.
- 이미화, 「『은교』에 나타난 노년의 섹슈얼리티 연구」, 『우리文學研究』 40, 2013.
- 이채원,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본 「베니스에서의 죽음(Der Tod in Venedig)」(1912)와 『은교』(2010)」, 『비교한국학』 23(1), 2015.
- 정미숙, 「노년과 젠더의 문화정치학: 박범신 노년소설 『은교』의 경우」, 『韓國文學論叢』 67, 2014.
- 조지프 엡스타인, 『우리를 지배하는 7가지 욕망의 심리학 1: 시기』, 김시현 옮김, 민음in, 2007.
- Ben-Ze'ev, Aaron, "Envy and Inequality," *The Journal of Philosophy* 89(11), 1992.

- Fairlie, Henry, *The Seven Deadly Sins Today*, Notre Dame: U of Notre Dame P, 2013.
- Kashorek, Matthew, "Dirty Old Man: Transgression and Transvaluation in Philip Roth's *The Dying Animal*," *HUF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ign Studies* 2(2), 2010.
- Roth, Philip, *The Dying Animal*, London: Vintage, 2001.
- Shelley, Mary, "The Mortal Immortal: A Tale," *The Mortal Immortal: The Complete Supernatural Short Fiction*, ed. by Jacob Weisman, Intro. by Michael Bishop, San Francisco: Tachyon Publication, 1996.
- Shostak, Debra, "Lateness, Timeliness, and *Elegy*: Philip Roth's *Dying Animal* on Film," *Genre* 47(1), 2014.
- Thomason, Krista K, "The Moral Value of Envy," *The Southern Journal of Philosophy* 53(1), 2015.
- Yeats, William Butler, "Sailing to Byzantium," *The Norton Introduction to Literature*, Shorter 10th Edition, ed. by Alison Booth & Kelly J. Mays, New York: W. W. Norton, 2010.

❖ ABSTRACT

Envy and Jealousy in Roth's *The Dying Animal*
and Bumshin Park's *Eungyo*

Oh, Bonghee

This paper explores envy and jealousy caused by conflicts between youth and old age in Philip Roth's *The Dying Animal* and Bumshin Park's *Eungyo*. In Roth's Novel, David became envious and jealous of a fictional man when he imagined "the pornography of jealousy." In this pornography, his imagined rival was a young man who was once David himself but was no longer young who might steal Consuela away from him. In this sense, David's envy towards this young rival can be called "self-envy." David considered sex an act of revenge on death. But his envy and jealousy undermined his power and effect. In *Eungyo*, envy and jealousy arose between Lee and Seo when they came into conflict because of Lee's literary talent and *Eungyo*. At first, Seo admired Lee. But he grew envious of Lee's talent when he gained popularity and success by publishing Lee's novels under his own name. He was engulfed in jealousy when he detected Lee's sexual desire for *Eungyo*. He even insulted Lee's old age, which enraged Lee. Lee's rage was mixed with his envy toward the young and his sense of betrayal against Seo. With Seo's death, all these negative feelings disappeared. Instead, Lee was captivated by the pulsing breath of life and its beauty he observed in *Eungyo*.

Key Words : envy, jealousy, Philip Roth, *The Dying Animal*, Bumshin Park,
Eungyo, rage

- 논문접수일 : 2017. 11. 10
- 심사완료일 : 2017. 11. 30
- 게재확정일 : 2017. 12. 1

